

SOOP 수퍼스 오드리아나 출사표…“힘들 때 의지할 선수”

“팀이 어려울 때 선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프로배구 SOOP 수퍼스의 외국인 선수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가 창단 첫 시즌 ‘해결사’를 자처했다.

198cm의 높이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 경험을 앞세워 공격을 책임지고, 승부처마다 동료들이 믿고 공을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미국·페루 이중국적의 오드리아나는 미국 스탬퍼드대를 거쳐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위스 등 유럽 리그와 미국 여자프로배구리그(LOVB)에서 활약했다.

주 포지션은 아포짓 스파이커지만 미들블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 경험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다.

당초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전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추가 선발에 나선 SOOP의 선택을 받아 뒤늦게 V리그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최근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오드리아나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염주체육관에서 만난 오드리아나는 “선수들



198cm 높이·멀티 포지션 경험 등 경쟁력 갖춰

창단 첫 시즌 책임감 강조…“가능성 보여줄 것

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주서 기쁘다. 코칭스태프와 구단 스태프들도 잘 챙겨줘 적응하기 편하다”며 “선수들과 배구 훈련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함께 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드리아나는 외국인 선수의 득점 비중이 높은 V리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외국인 선수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좋게 생각한다”며 “상황에 관계없이 팀이 어려울 때 선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는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꼽았다.

오드리아나는 “이전 리그에서 아포짓뿐만 아니라 미들블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로도 뛰었다.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해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한다”며 “팀이 어려운 순간 여러 역할을 맡으며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198cm의 신장을 활용한 블로킹도 강점이다.

그는 “공격과 블로킹 모두 자신 있지만 미들블로커 경험에 있어 블로킹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며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최대한 많은 블로킹을 잡아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V리그 도전에는 한국 무대를 먼저 경험한 동료들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정관장에서 뛰었던 지오바나 밀라나(등록명 지아)와 페퍼저축은행에서 활약한 조이 웨더링턴 등에게 한국 배구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응원 문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드리아나는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먼 원정경기까지 찾아와 힘을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며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가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

높고 매 훈련마다 발전하려는 모습도 한국 배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광주 생활 역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그는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광주가 미식의 도시라고 들었는데 조금 맵기는 해도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고 있다”며 “첫 가락질을 점점 마스터하고 있다”고 웃었다.

오드리아나가 바라본 한국 배구의 첫인상은 ‘정교함’이다.

그는 “볼 컨트롤과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고 스마트하게 플레이한다”며 “각 팀마다 강점이 있어 모든 팀과 맞붙어보는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SOOP과 처음 V리그에 도전하는 오드리아나는 같은 출발선에 섰다. 그만큼 창단 첫 시즌을 향한 책임감 또한 크다.

오드리아나는 “팀도 창단 첫해이고 나 역시 한국에서 처음 내 배구를 보여주는 시즌이다.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며 “팬들이 보내주는 응원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5년 만의 복귀’ 광주승마 이은주, 전국대회 2관왕

전북도지사배 마장마술 C·A클래스 1위

후원마 ‘퀴시’와 호흡…교수·선수 병행

15년 만에 다시 선수로 돌아온 이은주(43·호스 앤드립)가 전국승마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광주시승마협회 소속 이은주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에서 마명 퀴시와 함께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C클래스 통합 1위와 A클래스 통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오픈 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40대에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은주는 오랜 공백에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두 종목 정상에 오르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은주의 도전은 15년이라는 긴 공백을 딛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이은주는 선수 은퇴 이후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말산업과 승마 관련 과목을 가르쳐왔다.

현장을 떠나 후학 양성에 힘써왔지만 승마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15년 만에 다시 선수로 복귀해 광주승마협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복귀 과정에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다. 같은 승마장에서 운동하며 이은주의 가능성을 지켜본 남해진 씨가 2년 전 자신의 말을 후원하면서 본격적

으로 마장마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 씨가 소유한 퀴시와 함께 출전했다. 꾸준한 훈련으로 말과 호흡을 맞춰온 이은주는 정확한 동작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앞세워 C클래스와 A클래스에서 나란히 정상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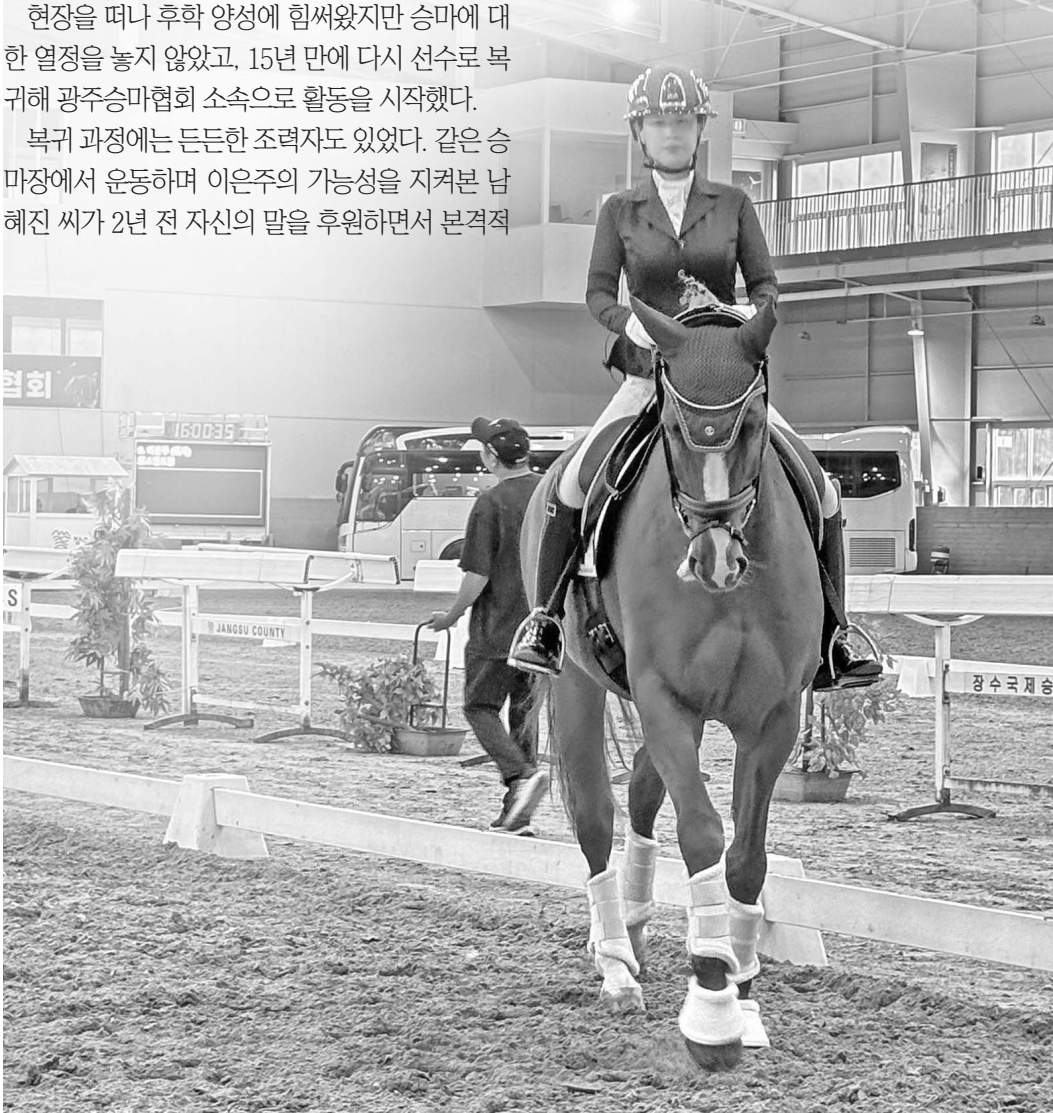
이은주는 “말을 다시 탈 수 있게 해준 후원자에게 감사하다”며 “15년 전 가졌던 열정을 다시 품을 수 있어 연습 자체가 매우 즐거웠고, 이렇게 훌륭한 성적까지 거두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다”고 전했다.

최철원 광주승마협회 회장은 “좋은 말을 후원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 광주 승마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다”며 “광주 승마의 위상을 높여준 이은주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마장마술은 가로 60m, 세로 20m의 마장에서 정해진 코스에 따라 다양한 걸음과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종목이다.

선수의 자세와 말의 움직임은 물론 선수와 말 사이의 호흡과 교감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승마의 대표 종목 중 하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 마장마술 C클래스 통합 1위와 A클래스 통합 1위를 차지한 광주시승마협회 소속 이은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승마협회

광주·전남체육회, 통합체육회 출범 준비 본격화

오늘 각각 이사회 개최…해산·청산 등 주요 안건 논의

통합준비위 구성·규정 정비 속도…통합 체육시대 대비

광주·전남 체육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양 체육회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기존 체육회 해산과 청산,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합을 위한 주요 절차를 점검하며 새로운 통합 체육시대를 대비한다.

19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양 체육회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설립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재적이사 70명과 체육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설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광주시체육회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과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통합체육회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적으로 다룬다.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과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총회 안건 상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도 같은 날 오후 2시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전남도체육회는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각종 제·개정과 2029년 제6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유치신청 기간 변경, 법인 해산, 청산인 선임,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및 권한 위임,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계획 등 총 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양 체육회의 통합 작업은 지난월부터 구체화됐다.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 통합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통합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협의해 왔다.

통합은 기존 양 체육회를 해산한 뒤 새로운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체육회의 권리와 재산, 사업 등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하고 집행부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통합 정관과 제규정 정비를 비롯해 회원등록관리 통합, 조직·인사, 장립총회, 법인설립 인가 및 등기 등 통합체육회 출범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양 체육회는 향후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통합준비위원회에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법인 해산과 청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통합체육회 출범을 준비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통합체육회장은 “호남체육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통합체육회 출범을 준비하고 체육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선수와 지도자, 임직원, 회원종목단체가 혼란 없이 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전남체육이 가진 역사와 전통, 체육인의 권익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전남과 광주 체육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체육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 침단고 볼링부, 대통령기 전국대회 종합우승

금메달 4개…남자 18세이하부 ‘정상’

민도율, 개인종합·마스터즈 등 4관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침단고등학교 볼링부가 전국 무대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며 남자 18세이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침단고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불토피아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2인조전과 5인조전, 개인종합, 마스터즈 등 4개 종목 정상에 오르며 남18세이하부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 남18세이하부에는 전국에서 324명의 학생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2인조전, 3인조전, 5인조전, 개인종합, 마스터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침단고는 단체전부터 개인종합까지 고른 활약을 펼치며 고교 볼링 강호의 면모를 과시했다.

먼저 2인조전에서는 민도율(3년)·김재영(3년)이 6경기 합계 2655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 불토피아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남자 18세이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침단고 선수단과 김형태 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5인조전에서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김은준(1년)·조예준(1년)·송도길(2년)·민도율(3년)·김재영(3년)이 호흡을 맞춰 6경기 합계 6469점을 기록, 정상에 올랐다.

해 종합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